

## Hana Market Weekly

# 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4. 10. 7

# 주간 달러/원 동향(9/30~10/4) 및 전망



## 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PCE물가 2%대 초반 진입에 따른 연준 빅컷 가능성 점증과 중국 경기 부양 기대를 반영한 위험 선호 심리 확산에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하며 출발
- 중반,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1,310원 후반대로 되돌림 시현
- 후반, 미 서비스업 경기 연속 확장세에 연준 빅컷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달러 강세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험회피 분위기에 1,330원대로 큰 폭 상승하며 마감

## 달러/원 전망

- 지난주 후반 발표된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에 따른 현준의 추가 빅컷 기대를 크게 약화시킨 영향 등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탄력 받을 전망
- 여기에 전증하는 중동전쟁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도 강달러 흐름을 지지할 요인으로 보임
- 재차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관련 달러 매도 확대 움직임과 금번 9월 고용 지표가 장기적인 금리인하 경로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 등이 상승 압력에 제한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10.9	1,335.1	1,303.4	1,333.7	+22.8

예상거래범위
1,335원 ~ 1,350원

# 엔·유로화 동향 (9/30~10/4)



## 유로화 동향

- 주초,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반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인 측면이 대비되며 유로화는 약세 출발. 이어 유로존 9월 CPI가 2%를 하회한 가운데 ECB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1.10달러대로 급락
- 중반, 주요 ECB 인사들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유로화 약세 흐름이 이어짐
- 후반, 독일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제 활동 둔화를 시사하자 추가 약세를 시현. 이어 주 후반, 견조한 미 고용지표에 유럽보다 강한 미 경제 상황이 부각됨에 따라 달러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며 1.09달러대에서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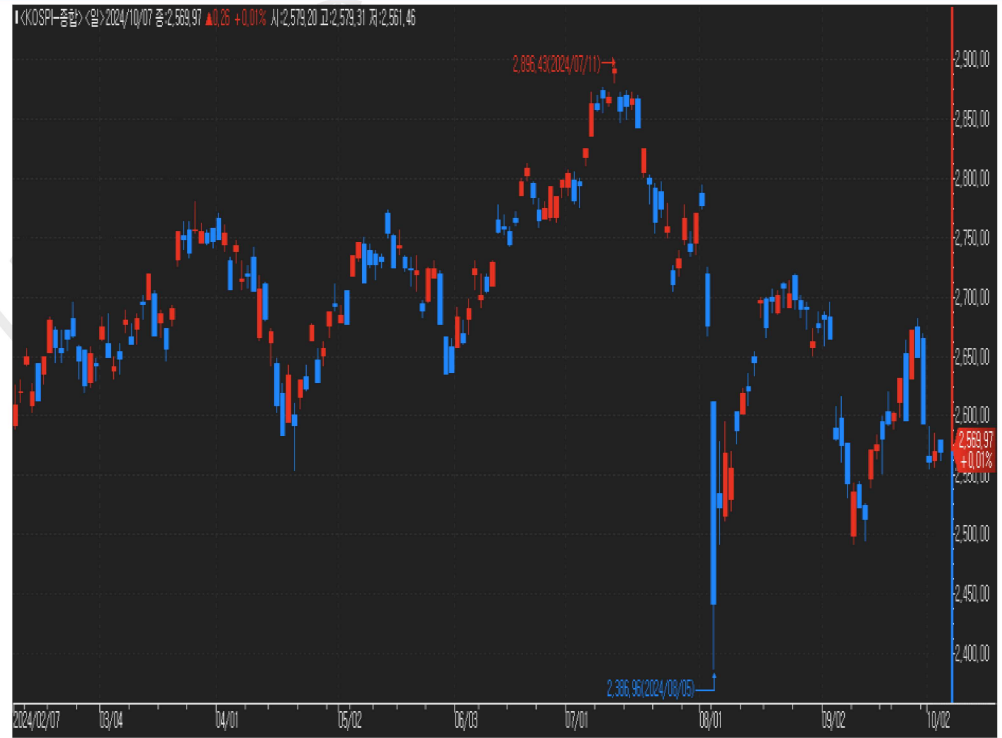
## 엔화 동향

- 주초, 일본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제한적인 점이 부각된 가운데 연준 빅컷 기대를 차단하는 파월 의장 발언에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 출발. 이어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폭 강세를 보임
- 중반,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스탠스를 내비친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 발언에 엔화 가치 급락하며 146엔대에 진입
- 후반, BOJ 긴축 지연 우려를 반영한 엔화 약세 흐름과 미 서비스업 호조세에 따른 강달러에 추가 약세를 시현. 이어 주 후반, 예상을 크게 웃돈 미 비농업 고용지표로 인한 연준 빅컷 기대 소멸과 미 국채금리 상승에 약세 압력 가중되며 148엔대로 급등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164	1.1209	1.0952	1.0975	-0.0189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2.2	149.0	141.6	148.7	+6.5

#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9/30~10/4)



##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국내 광공업 생산이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며 한은 금리인하 기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미 8월 PCE 지표가 전년 동기비 2.2%를 기록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한 흐름 속 하락 출발. 이어 국군의 날 휴일 기간 중 파월 의장의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중립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이 빅컷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시장에 반영된 양상. 하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에 따른 확전 우려와 대내적 전년 동월대비 1.6%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식에 한은 금리 인하 기대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큰 폭 하락 지속
- 후반 들어, 미국 9월 고용보고서 공개에 대한 경계심리 등이 외국인 투자자 국채선물 순매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전환하며 마감

## 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코스피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, 중국으로의 수급 쏠림 영향이 코스피에 반영된 가운데 연휴 관련 국내 수급 공백 요인 및 반도체 업황 우려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속 하락 출발. 이어 국군의 날 휴일 후 개장한 코스피는 전일 뉴욕증시가 미 ISM 제조업지수 부진, 동부지역 항만 파업 및 중동 확전 이슈 등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을 반영한 가운데 주 후반의 미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강화되며 큰 폭 하락 지속
- 후반 들어,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에 글로벌 증시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미국 동부항만노조 파업 종료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